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2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5. 11. 25.(수) 09: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이상해, 박경립, 박상미, 우경식, 이근관,
이배용, 주성욱, 황재하 (총 8명)
- 심의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지역 확대 |
| 2 | 2017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종목 선정 |
| 3 |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대상 선정 |

1.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지역 확대

가. 제안사항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이자 세계유산 우선등재 추진 대상인 「서남해안 갯벌」의 원활한 세계유산 등재사업 추진을 위해, 등재추진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2013.8.27.)에서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 지역을 신안과 서천지역 갯벌을 우선 등재 추진하고 고흡(고창, 부안)과 여자만(고흥, 보성, 순천, 여수) 지역은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대상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한 바, 현재 유예기간이 지난 상황이나, 전남 순천 및 보성(2015.8월)과 전북 고창(2015.10월) 등 3개 지역이 각각 세계유산 등재추진 재 참여의사를 밝혀음.
- 이에 참여의사를 밝힌 순천, 보성 및 고창지역 갯벌을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지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대상지역 변경내용

- 유산명 : 서남해안 갯벌(Southwestern Coast Tidal Flats)
- 대상지역 변경내용

구분	충남	전북		전남			
	서천	고창	부안	신안	보성	순천	무안
잠정목록	×	○	○	○	○	○	○
현재 추진지역 (13.8.17.세계유산 분과 심의)	○	×	×	○	×	×	×
추가요청지역 (15.8월,10월)	(계속)	○	×	(계속)	○	○	×
비고	하구역 섬갯벌	만입형 섬갯벌	섬갯벌 없음	다도해형 섬갯벌	만입 +하구형	보성과 연결	만입형 섬갯벌

라. 대상지역 관련 추진경과

-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2010.1.11)
 - 6개 지역 : 전북(고창, 부안), 전남(신안, 보성, 순천, 무안)
-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준비위원회 회의 및 제5차 포럼(2013.2.7.)
 - 등재추진대상 8개 지역 선정 : 신안 다도해 갯벌(신안), 여자만 갯벌(고흥, 보성, 순천, 여수), 고흡(고창, 부안), 유부도 갯벌(서천)
- 등재추진 관련 기관 간 MOU 체결(2013.5월)
 - 8개 지역 : 서천, 고창, 부안, 여수, 순천, 고흡, 보성, 신안
- 일부 지자체 참여 철회(2013.8.21.)
 - 3개 지역 철회 : 고흡, 보성, 부안
- 사업 추진 대상지 재선정(2013.8.27./ 2013년도 제2차 세계유산분과위원회)
 - 신안과 서천을 우선 등재 추진함
 - 고흡(고창, 부안)과 여자만 갯벌(고흥,보성,순천,여수) 지역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대상 포함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
-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설립(2014.6월)
 - 2개 지역 참여 : 신안군, 서천군
-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관련 활동(2014.10월~2015.7월)
 - 부안군수 설명 및 협조 요청 (2014.12.30)
 - 전남도 환경정책국 설명 및 협조 요청 (2014.12.30) : 보성군 참여독려 협조 요청
 - 고창군 관계자 사무국 방문(2015.4.6) : 추진 경과 및 내용 설명
 - 순천만(순천, 보성) 확대를 위한 전남도 논의(2015.4.7~10)
 - 고창군 정책조정회의 참석 (2015.4.23) : 세계유산 추진내용 설명
 - 순천시 보전과장 면담 (2015.5.19) : 보성군 및 고흡군 설득 노력키로 협의
 - 보성군 문화관광과장 면담 (2015.6.1)
 - 고창군의회 회의 참석 (2015.6.10) : 세계유산제도 및 향후계획 설명
 - 고창군 공무원 정례회의 시, 세계유산 및 서남해안갯벌 OUV 설명 (2015.7.1)

- - 전북도 세계유산위원회 도지사 회의 참석 (2015.7.30) : 서남해안 갯벌의 가치 등 설명
 - 보성군 장도 주민 대상 워크숍 (참석주민 찬성)
-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2차 추진위원회 회의(2015.7.13.)
 -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지역 확정 논의
-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4차 이사회 회의(2015.9.1.)
 - 세계유산 등재추진 대상지역 확정(5개지역 : 서천, 고창, 순천, 보성, 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3개) 등재 추진 참여의사 공식 표명(2015.8월~10월)
 - 순천시 및 보성군 : 전라남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공문 제출(2015.8.31.)
 - 고창군 : 전라북도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공문 제출(2015.10.29.)
- (등재추진단에서) 2015년 국내학술대회 개최(2015.10.28.~29.)
 - 관련 지자체(서천,고창,순천,보성,신안)와 지역주민 추진노력 발표 및 공유

마.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의견

- **연속유산으로서의 완전성 및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서남해안 갯벌 대상지역 중, 신안 다도해는 다도해형 섬갯벌, 서천은 하구형 섬갯벌로서 연속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에 있음.
 - 기본계획 및 등재준비위원회 활동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곰소만과 여자만은 만입/개방형 섬갯벌임.
 - 섬갯벌의 갯벌퇴적시스템과 생물종 다양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고창의 행정 구역 내에만 섬이 존재하고 있어 완전성에 위배되지 않으며,
 - 보성 및 순천의 경우, 보성 장도를 중심으로 순천만까지 단일 퇴적시스템과 생물상을 보여주고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도 완전성에 위배되지 않음.
 - 따라서, 고창, 보성 및 순천의 대상지역 확대는 섬갯벌의 완전성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속유산으로서 서남해안 갯벌(섬갯벌)의 다양성(신안-다도해형 섬갯벌, 서천-하구형 섬갯벌, 고창-만입·개방형 섬갯벌, 보성 및 순천-만입·개방+하구형 섬갯벌)을 보여주는데 필수적임.

바. 문화재청 의견

-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재신청 지역을 2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대상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의 다양하고 독특한 특징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다 잘 입증할 수 있고, 완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신안 다도해갯벌과 서천 유부도갯벌은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있고, 크기도 차이가 커 기형적으로 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기존의 인식을 지역확대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임.
 - 당초 잠정목록 등재대상에 포함된 지역들이 다시 포함됨으로써 등재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지역적인 균형성이 반영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과정을 거쳐 대상지역이 선정됨으로써, 향후 추진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사. 의결사항

- 보류함.
 -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지역주민 등의 의견서, 관련 전문가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보완자료를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보류 7명, 제척 1명/ 출석 8명

확보가 수반되는 작업으로, 공동등재 주도국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

2. 2017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추진 종목 선정

가. 제안사항

2017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대상종목으로서 씨름(단독)과 칠공예(베트남과 공동등재)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북한 공동등재로 추진하려던 '씨름'을 북한이 2016년 단독등재 종목으로 신청('15.3월)함에 따라 2017년 남한 단독 등재 종목으로 '씨름'의 등재를 심의하고자 함
- 또한 공동등재 우선 협의 당사국(베트남)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로 '칠공예'가 선정된 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 추진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 내용

1) 대상문화재 : 씨름(단독) 및 칠공예(베트남과 공동등재)

- '씨름'은 예비목록에 포함되어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기준(해당 종목은 신청 당사국의 영토에 속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에 포함되어 추진에 적합
- '칠공예'는 '칠장'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113호로 지정되어 있어 유네스코 대표목록 등재기준에 부합되므로, 추진에 적합

2)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씨름) 북한의 '씨름' 단독등재 신청에 대하여 등재국 확대를 통한 공동등재 지속추진을 위해서 등재신청 필요
 - (칠공예) 인류무형유산 심사 총량이 제한된 가운데, 국가 간 공동등재는 우선순위를 두어 심사함. 특히 다국가 공동등재는 물적·인적 재원

○ 향후계획

<주요일정>	<시기>	<주관부서>
- 선정된 종목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내부회의 개최	'15. 12월	무형문화재과 국제협력과
↓		
- '씨름'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칠공예'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베트남)	'16. 1월~2월	무형문화재과 국제협력과
↓		
씨름 단독신청서 및 '칠공예' 공동등재 신청서 제출	'16. 3월	국제협력과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함.
 - 원안대로 씨름은 단독 등재를 추진하도록 함. 다만, 추후에는 남북 간 공통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공동등재 방식으로 추진노력이 필요함.
 - 원안대로 칠공예는 베트남과 공동등재를 추진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원안가결 8명/ 출석 8명

3.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대상 선정

가. 제안사항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2016년에 등재 신청할 기록유산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기록물 선정을 위해 올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접수된 총 13건에 대해 사전 전문가 검토회의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였음
- 동 심사 결과로 추천된 기록물 중 2017년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 기록물 (최대 2건)을 최종 선정하고자 함

다. 추진 경과

- 2015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대국민 공모
 - 공모기간 : 2015. 7. 20.(월) ~ 2015. 8. 31.(월)
 - 공모결과 : 13건 접수
 - ① 4.19혁명기록물(2건) ② 기려수필 ③ 조선왕조 군영등록 ④ 한국 족보 ⑤ 국채보상운동기록물 ⑥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⑦ 조선왕조의 어보와 어책 ⑧ 상주동학교당기록물 ⑨ 한국의 증가음식조리서 ⑩ 일사 김봉룡 나전칠기 도안 ⑪ 동학농민혁명기록물 ⑫ 한국전통문화와 과학 ⑬ 삼국사
- 전문가 사전 검토회의
 - 일시/장소 : 2015. 10. 19.(월)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서지학), ○○○(한국사), ○○○(한국사), ○○○(서지학)
 - 주요내용 : 심사대상 기록물에 대한 요건검토, 기본사항 검토 및 자문

-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5. 11. 17.(화) / 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성균관대 교수) 등 11명
 - 주요내용 :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대상 후보 추천
 - 13건의 심사대상 기록물에 대해 사전 검토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
 - 회의결과 : 후보 4건 추천, 우선순위 선정

라. 후보 추천 결과

- 2017년 등재 신청대상 후보 추천(4건)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 국채보상운동기록물
 - 조선왕조 군영등록
 - 4·19혁명 기념물
- 추천된 기록물 개요 및 검토의견

순위	기록물명	기록물개요	검토결과
	신청인		
	소장기관		
1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조선시대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빈 등을 책봉하거나 존호, 시호, 휘호 등을 수여할 때 만든 의례용 인장인 어보와 그 내용을 여러 재료에 글로 새겨 수여한 어책 (교명, 옥책, 죽책, 금책) 646건 10,289점	○ 조선시대 500여년 간 전시기에 걸쳐 제작, 보관되어 온 어보·어책은 문화재적 가치 뿐 아니라 세계사적 가치도 우수하여 등재가능성이 높고 어보·어책 종합연구용역 수행한 바 있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2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제공한 차관을 갚기 위해 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기 기록물(발기문, 취지문, 모금장부 등), 언론기록물, 정부기록물 등 2472건	○ 기록물의 성격이 우수하여 기록유산으로서 가치가 높고, 관련 조사 및 연구성과가 많으며 추진 주체(기념사업회, 대구시 지원)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음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세계기록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가기록원 등 10개소, 개인		
3	<조선왕조 군영등록>	조선후기 도성에 주둔하던 중앙 군영에서 제작한 국가 기록물로서 조선후기 군사 제도를 비롯하여 정치, 외교, 등의 분야가 포함된 기록물로	○ 조선후기 각 군영에서 생성된 기록물로 장서각, 규장각에 나누어 보관되어 있고 국제학술회의 실적 있음 ○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규장각	장서각과 규장각에 보유된 총 89종 689책	있는지, 관련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4	<4·19혁명 기념물>	4·19혁명의 직접적인 원인, 전개과정, 혁명직후 처리 과정과 관련된 기록물로 국가기관·국회·정당 생산자료, 학생·시민 생산자료, 사진영상 자료, 외국 자료 등 1,450점	○ 4·19혁명과 관련된 자료들로 기록유산 가치 있음 ○ 추진 주체가 등재 신청과정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확인 필요
	4·19혁명 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7개 기관		

※ 추천 기록물 신청서 별첨

※ 첨부 1 <추천 제외 기록물 심사의견>

첨부 2 <세계기록유산 개요>

<첨부1> 추천 제외 기록물 심사의견

기록물명	검토 의견
4·19혁명 회고록 책자 (김금석)	○ 동 책자는 회고록 위주로 구성되어 원본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짐.
기려수필	○ 동 자료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지 않고, 개인적 문집에 한정하지 말고 항일운동 인물사 자료모음으로 묶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음.
한국 족보	○ 신청 자료의 작성 내용이 미비하고 체계화가 안되어 있음. 신청자의 전문성과 대표성 부족함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 1차 피해기록물 비중이 적고, 대다수 기록물이 근래에 작성된 수십만명의 개인조사서, 피해조사서, 지급심사서로 구성되어 있어 유네스코 차원에서 세계사적 가치를 찾기 어려워 보임
상주동학교당 기록물	○ 상주동학교당 이외 타지역 교당의 유사한 기록물까지 포함하고 동학혁명 기록물과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한국의 증가음식조리서	○ 2책만 가지고 신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증가음식 관련 타 기록물을 아우를 필요 있음.
일사 김봉룡 나전칠기 도안	○ 개인이 제작한 도안무늬에 대한 가치 규명이 어렵고 세계기록유산 등재기준에 맞지 않음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 동학혁명 및 동학교당기록물로 통합하여 상주동학교당 이외 타지역 교당 유사기록물까지 포함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관련 지자체·단체 간 상호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한국전통문화와 과학	○ 신청자료 및 관련내용이 불명확하며 기록유산 분야에 적합하지 않음
삼국사	○ 신청자료의 형식, 내용이 미흡하며 학계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세계사적 영향력에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움

<첨부2> 세계기록유산 개요

○ 명 칭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1992년 창설)

○ 목 적

-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가장 적절한 기술을 통해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과 보존의 필요성을 증진하고, 기록유산 사업 진흥 및 신기술의 응용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이 기록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 관 : 유네스코 정보사회국 산하 국제자문위원회(IAC)

○ 신청자격 : 정부기관, 소유자, 관리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 단체도 자유롭게 등재 신청이 가능함(단, 심사대상은 국가별 2개까지-공동등재는 제외)

※ 세계문화(자연)유산 및 인류무형유산 등재처럼 국가간 협약사업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청대상 기록유산 : 세계적 영향력이 있는 인류의 중요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세계적 중요성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어 있는 것이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됨

- 문자로 기록된 것(책, 필사본, 포스터 등)
-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테생, 지도, 악보, 설계도면 등)
- 시청각 자료(음악 컬렉션, 영화, 음성기록물, 사진 등)

○ 등재 기준

1.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 해당 유산의 본질 및 기원(유래)을 증명할 수 있는 정품일 것
2.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경우, 해당 유산이 소멸되거나 유산의 품질이 하락한다면 인류 유산의 발전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리라 판단 되는 경우
3.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 (1) 시간(Time) : 국제적 사건의 중요한 변화 시기를 현저하게 반영하거나 인류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경우
 - (2) 장소(Plac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던 특정 장소와 지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 (3) 사람(People) : 전 세계 역사와 문화에 현저한 기여를 했던 개인 및 사람들의 삶과 업적에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경우
 - (4) 대상/주제(Subject/Theme) :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요한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경우
 - (5) 형태 및 스타일(Form and Style) : 뛰어난 미적, 형식적, 언어적 가치를 가지거나 형태 및 스타일에서 중요한 표본이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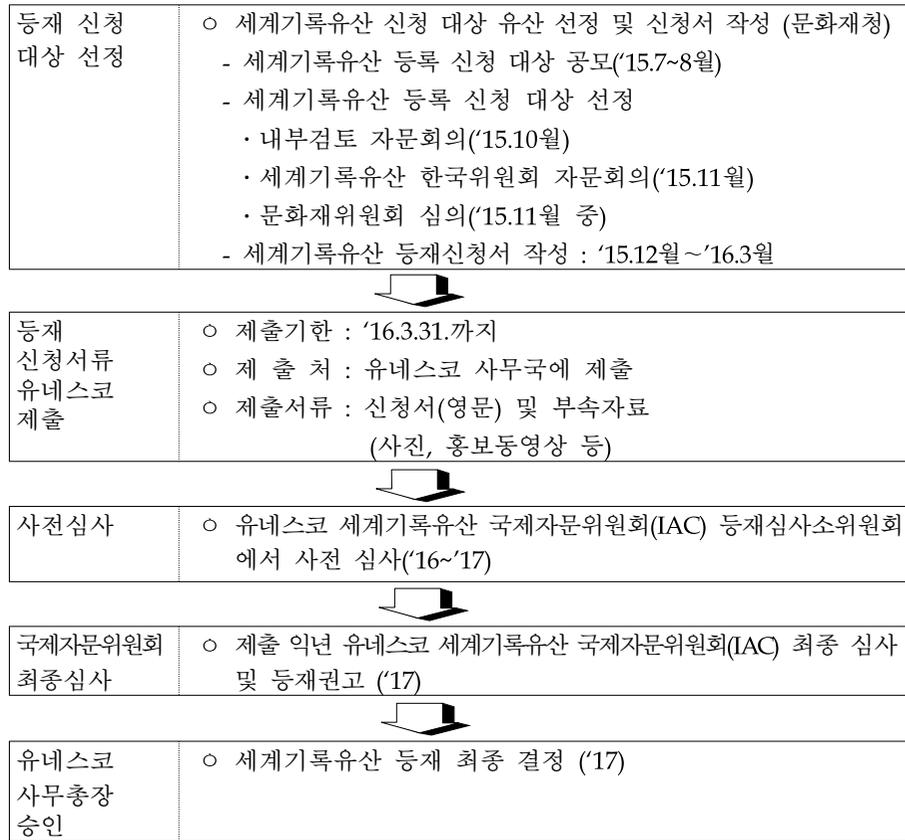
○ 보조 기준(고려대상)

- (1) 희귀성(Rarity) : 독특하거나 희귀한 자료
- (2) 원 상태로의 보존(Integrity) :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보존되어 있는 경우
- (3) 위협(Threat) : 해당 유산이 각종 위협 요소에서의 안전성 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비 조치가 적절한지의 여부
- (4) 관리 계획(Management Plan) : 해당 유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한 보존 및 접근 전략의 존재 여부

○ 법률적 기준

- (1) 소유권 : 신청한 등재 목록에 대한 소유자(관리자)의 동의 필요
- (2) 접근성 및 저작권 : 해당 유산과 관련 소유자(관리자)의 접근 및 저작권 사용승인 필요

○ 등재 추진절차



○ 등재 현황 : 107개국 총 378건 (2015. 11월 현재)

※ 우리나라 총 13건

- 훈민정음('97), 조선왕조실록('97)
- 직지심체요철('01), 승정원일기('01)
-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 경판('07), 조선왕조의궤('07)
- 동의보감('09)
- 일성록('11), 5·18민주화운동기록물('11)
- 난중일기('13), 새마을운동기록물('13)
- 한국의 유교책판('15),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15)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함.
 -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을 등재 추진 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조선왕조 군영등록, 4.19 혁명 기념물은 다음 등재추진 대상 선정 시 그 가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원안 가결 7명, 제척 1명/ 출석 8명